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12년 6월 21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무역구제정책팀 박형건 과장(02-2110-5551), 이헌두 사무관(5559), 한비룡 주무관(5557)

美·中·印 등 주요국에 불필요한 무역규제 자제 촉구

- 2012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6.21(목) 코엑스에서 개최 -

- 美, 中, EU, 인도, WTO 등 국내외 무역구제 전문가 150여명 한자리에 -

□ 미국의 삼성LG의 냉장고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 LG-오스람간 LED 특허권 분쟁 등 무역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 지경부 무역위원회는 美·中·EU·印 등 무역구제 관련 주요국 정부, WTO 사무국, 국내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함

* 미국(국제무역위원회 위원, 상무부 차관보), 중국(상무부 부국장), EU(집행위 통상총국 국장), 인도(상공부 국장), 호주(관세청 수석자문관), 터키(경제부 부국장), WTO(무역규범국 국장)

□ WTO DDA 협상이 고착된 상황에서 한국이 세계 무역구제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유일한 국제포럼을 매년 개최함으로써, 무역구제 기관간 인적 네트워크 강화 및 의견교환의 기회 제공

○ 금번 포럼의 참석국가는 세계무역의 59%('11년), 세계 무역구제 조사의 56%('95~'11.6월)를 차지하고 있음

○ 무역구제조치는 과거 선진국이 주로 활용했으나, 최근 개도국으로 사용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 수출중심 성장전략과 무역구제조치의 공정한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는 한국이, 선-개도국 입장을 조율하는 교량적 역할을 할 필요성 증대

* 한국은 세계 2위의 피소국(284건), 세계 11위의 제소국(111건): '95~'11.6월

□ 금번 12차 서울국제포럼은 크게 3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 (시기) 유럽발 재정위기 등에 따른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최

○ (한국의 역할) 무역위원회 설립 25주년을 맞아 그동안 축적된 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제고

○ (무역환경) 한-미, 한-EU FTA 등이 발효된 상황하에서 양자 세이프가드 등 새로운 무역구제제도 운용에 대한 모범관행 모색

□ 동 포럼에 참석한 주요국 대표는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상존한 가운데 보호무역조치를 지양하는 입장을 제시

○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가 많으나, 지난 30년간 미국의 수입증가율이 연평균 7.2%씩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개방된 시장임을 강조

○ 중국은 WTO 가입이후 최다 피소국으로서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해야한다고 주장

○ 한국은 전세계 FTA체결이 확대되고 있으나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로 인해 자유무역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앞으로 WTO의 무역구제조치 모니터링시 신규 조치의 증가건수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조치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며,

- FTA 협정상 무역구제조치 발동을 엄격히 하는 조항(최소부과원칙의 의무적용, 사전협의 등)에 대한 Best Practice를 만들 것을 제안

□ 또한 FTA협정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의 특성과 활용전망을 집중 논의하였음

○ 동 제도는 다자 세이프가드와 달리 상대국 보복가능성은 최소화되지만,

- 특정품목의 관세인하 정지 또는 양허이전 수준으로 인상하며 조치기간도 2년 안팎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초기단계에서의 신속한 적용이 중요

○ 따라서 피해구제를 업계 신청에 사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 정부의 사전 분석기능 확대를 통해 사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美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산업경쟁력조사가 모범사례로 언급됨

□ 조석 차관은 축사를 통해

○ 세계 각국이 FTA 등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교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또한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성장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무역 확대가 필요한 만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피소를 줄이고 FTA로 인한 시장 개방속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제도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 또한, 최근 개도국들의 무역구제조치 비중이 커지고 있고, 지재권 분야로 무역구제제도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 향후 동 포럼이 바람직한 무역구제제도의 방향 설정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국의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 SK하이닉스,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국내 대표 수출기업과 해외 정부대표간 “Business Dialogue"도 개최됨

○ 금번 포럼 참석국들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받는 반덤핑조사의 64.4%, 상계관세조사의 100%, 세이프가드조사의 47.6%를 차지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12.5월 현재, 총115건)>
* 반덤핑규제(총90건): 印(21), 中(17), 美(8), 터키(7), 豪(3), EU(2)
* 상계관세규제(총4건) : 美(4)
* 세이프가드규제(총21건) : 터키(8), 印(2)

○ 특히 국내 철강업계는 'Business Dialogue'를 통해, 동일 철강제품에 대해 15년 이상 덤핑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FTA체결 등 자유무역 취지에 맞게 보호무역조치가 자제될 것을 촉구

별첨 1 2012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요

1.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2.6.21(목) 10:00~19:30, 코엑스(컨퍼런스룸 318호)

□ 주최/주관 : 무역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무역협회

□ 주제 : '무역구제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 참석자 : 국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 및 전문가 약 150여명

○ (국 외) 美 ITC 위원, 美 DOC 수입행정처 차관보, 중국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 부국장, EU 집행위 무역구제국장, 인도 상공부 국장, WTO 무역규범국장, 호주 관세청 수석자문관, 터키 경제부 수입국 부국장, Steptoe&Johnson LLP 대표변호사

○ (국 내) 조석 지식경제부 차관,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동국대 곽노성 교수·서울대 안덕근 교수·고려대 박노형 교수·이대 최원목 교수 등 학계, SK하이닉스,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업계, 회계·법무법인

2. 주요 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10:00~10:15	**Opening Session** · 개회사 현정택(무역위원회 위원장) · 축 사 조 석(지식경제부 차관)
10:15~10:30	**포토세션**
10:30~12:00	**Session I : 세이프가드제도의 현황 및 재설계** · 발표자 Jens Schaps, J. K. Dadoo, Richard O. Cunningham, 최원목 · 토론자 박노형, 이재형, 이진환
12:00~14:00	**오찬** (COEX 컨퍼런스룸 317호)
14:00~16:30	**Session II : 무역구제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 발표자 Daniel R. Pearson, Paul Piquado, Johann Human, Mehmet Azgin, Yu Ben Lin, Mrs. Sharon Anne Nyakuengama, 임승윤 · 토론자 곽노성, 안덕근, 강준하
16:30~16:45	**폐회식**
17:50~19:30	**Business Dialogue & 만찬** (COEX 인터콘 지하1층 로즈룸)

3. 포럼 주요 해외 참석자

소속기관	성 명	직 급
美 ITC	Daniel R. Pearson	위원
美 DOC	Paul Piquado	차관보
중국 상무부	Yu Ben Lin	부국장
EU 집행위 통상총국	Jens Schaps	국장
인도 상공부	J. K. Dadoo	국장
호주 관세청	Mrs. Sharon Anne Nyakuengama	수석 자문관
터키 경제부 수입국	Mehmet Azgin	부국장
WTO	Johann Human	국장
Steptoe&Johnson LLP	Richard O. Cunningham	대표 변호사

별첨 2 세계 무역구제조치 현황('95~'11.6월, WTO 통계)

□ 연도별 무역구제 조사개시 추이

(단위 : 건)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반덤핑	157	226	246	266	358	298	372	315	234	220	201	204	165	213	209	171	155	**4,010**
상계관세	10	7	16	25	41	18	27	9	15	8	6	8	11	16	28	9	8	**262**
세이프가드	2	5	3	10	15	25	12	34	15	14	7	13	8	10	25	20	9	**216**

□ 반덤핑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비 고
제소국(건수)	인도(656)	미국(458)	EU(437)	아르헨티나(291)	호주(235)	**한국(111) 11위**
피소국(건수)	중국(853)	**한국(284)**	미국(234)	대만(211)	일본(165)	-

□ 상계관세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비 고
제소국(건수)	미국(109)	EU(60)	캐나다(25)	남아공(13)	호주(11)	**한국(0)**
피소국(건수)	인도(50)	중국(46)	**한국(18)**	이탈리아(13)	미국,인니(12)	-

□ 세이프가드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비 고
제소국(건수)	인도(26)	터키, 요르단(15)	칠레, 인니(12)	미국(10)	체코, 필리핀(9)	**한국(4)**

별첨 3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12.5월 기준, 한국무역협회)

□ **총 규제건수 : 22개국, 115건**(규제중 96건, 조사중 18건)

(단위 : 건)

구 분	인도	중국	미국	터키	파키스탄	인니	러시아	브라질	태국	우크라이나	호주	EU	기타	계
반덤핑	21 (1)	17	8 (1)	3	7 (1)	2 (1)	1	5 (3)	5 (3)	1	3(1)	2	15 (3)	90 (14)
반덤핑/상계관세	–	–	4 (1)	–	–	–	–	–	–	–	–	–	–	4 (1)
상계관세	–	–	–	–	–	–	–	–	–	–	–	–	–	–
세이프가드	2 (1)	–	–	8	–	3	4	–	–	2 (1)	–	–	2 (1)	21 (3)
계	23 (2)	17	12 (2)	11	7 (1)	5 (1)	5	5 (3)	5 (3)	3 (1)	3 (1)	2	23 (4)	115 (18)

* ( )은 조사중인 건

○ 국가별 규제건수

- 인도가 23건으로 1위 규제국이며 인도·중국·미국 3국이 52건(45.2%)를 차지하고, BRICs가 50건(43.5%)를 점유
- 선진국은 21건(18.3%)인데 비해, 개도국은 94건(81.7%)으로 개도국에 의한 견제가 높은 수준

○ 형태별 규제건수

- 반덤핑 90건, 반덤핑/상계관세 공동 4건, 세이프가드 21건으로 반덤핑이 규제의 대부분(78.3%)을 차지

○ 품목별 규제건수

- 화학 및 철강 2개 분야가 79건으로 전체의 68.7%를 차지
- 화학은 중국·인도가 27건(62.8%), 철강은 미국이 9건(25.0%), 섬유는 인도·터키가 8건(47.1%)으로 주도하고 있음

품목	화학	철강	섬유	전기전자	기타
건수	43(4)	36(9)	17	6(1)	13(4)

* ( )은 조사중인 건